

# 조선의 강건한 정신을 길러낸 소우주 공간

《서원》 펴낸 안장현·이상해씨

조선시대 정신의 양분은 향촌마다 뿌리내린 '서원'의 샘에서 길어올랐다. 조선땅 젊은이들은 자궁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심신의 강건함을 키워나갔다. 그들을 숙성시킨 산천의 서원은 이제 400여년 세월을 견디며 오늘 우리에게 그 공간에 담긴 정신의 자취를 전할 뿐이다. 사라져가는 서원에 서린 유무형의 흔적들을 사진작가 안장현(51)씨와 이상해(50,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서원》(열화당)의 책으로 부활시켰다.

## 5년간 답사 끝에 550여컷 사진으로 담아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한 서원을 찾는 일은 참 즐거웠어요. 한쪽에선 사진을 찍으며 그 체취를 느끼고, 한쪽에선 건축조사와 실측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사대부 선비들의 삶의 공간을 읽어냈지요.”

안장현씨와 이상해 교수가 '서원'으로 마음이 통한 것은 5년전. 이미 각자 전통건축에 대한 애정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을 때였다. 93년 봄부터 이들의 발길이 닿은 서원은 백여곳이 넘었고, 주요 서원은 열차례 넘게 찾았으며, 서원마다 계절과 시간을 맞춰 서너차례씩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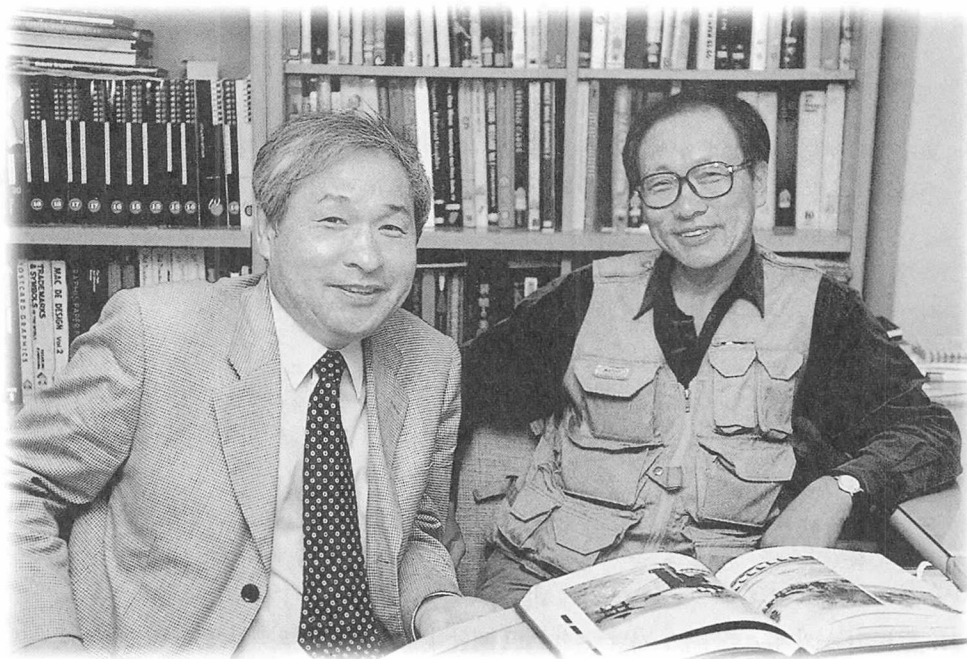
마음이 통한 이들의 답사여행은 행복했다. 성리학 사상의 탄탄한 이론적 바탕을 건축공학으로 풀어내는 이상해 교수의 글솜씨는 예상치 않았고, 전통문화의 탁월한 형상화로 사진미학을 일궈온 안장현씨의 심미안 역시 깊이가 만만찮았다. 최종 갈무리된 64곳 서원은 이들의 글과 550여컷 사진으로 정갈하게 담겼고, 서원의 연혁과 향사일(享祀日)등을 수록한 '일람표'와 배치도, <전국의 서원분포도>까지 갖춰 우리나라 서원을 총정리했다.

우리나라 서원의 역사는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3년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된다. 퇴계 이황의 공인화 노력으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의 편액을 받으면서 서원은 관립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실천도장의 아카데미로 자리잡는다. 유생들은 강당에 모여 학문을 토로하고, 사표로 삼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향촌의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적 기동역할을 했다.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림세력의 정신세

**“강학이 이뤄지던 곳에는  
활달한 생동의 공간이,  
제함을 하는 곳에는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서원 전체의  
역동적인 공간을 이룹니다.  
성리학적 정신세계가  
자연과 합일하는 이 공간에  
집약돼 있는 셈이지요.  
그 안에는 우리만이 지닌  
고유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해 교수(왼쪽)와  
사진을 찍은 안장현씨.



계를 반영한 서원은 16세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최충을 모신 해주의 문헌서원(文憲書院), 정몽주를 모신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등 초기 서원을 비롯해, 김종직을 모신 밀양의 덕성서원(德城書院, 뒤에 예림서원), 김굉필을 모신 현풍의 쌍계서원(雙溪書院, 뒤에 도동서원), 이황을 모신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등 대표적인 서원들이 속속 들어섰다. 숙종대에 이르러 봉당정치와 혼란과 함께 서원의 폐단이 심해졌지만 좀처럼 서원의 폐해는 수그러들지 않다가 대원군이 지방유림의 반발 속에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았는데, 고종 이후 복고적 선비들이 다시 복원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

한때 왜곡된 기능으로 역사의 풍랑을 겪기는 했지만, 서원은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의 적통을 이은 상징이다. 도학의 뜻을 구하려는 정신세계의 산물이므로 서원은 주로 골짜기 깊숙하고 구름이 아늑한 곳에 자리했다. 시끄러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고요한 가운데 천하의 이치를 따지며 덕(德)을 쌓고 인(仁)을 익히려는 뜻이다.

“서원은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면서, 수양하고 독서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서원제도에 함유된 은둔사상과 더불어 심지를 깨끗이 하고 정신을 즐겁게 하는 입지조건을 갖게 됩니다. 서원의 앞 전

체가 특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멀리 바라보며 우주의 천리를 깨치고 수려한 산수경계에서 마음의 포부를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것이 서원의 건축정신이라는 이상해 교수의 설명이다. 이교수는 절제와 '맑음의 미학'을 서원건축의 특징으로 요약하는데, 굳더기 없는 건축형식과 주변 자연에까지 사고를 확대케 하는 배치구도에서 또다른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여백의 건축공간을 맘으로 한장 한장 담았던 안장현씨는 사진작가의 또다른 감각으로 서원건축에 감탄한다.

“서양건축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성격이지만 우리 건축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형식이지요. 대청마루나 누 같은 데 서면 한눈에 자연이 펼쳐지는, 자연과 건물이 조화된 공간입니다. 84년 화엄사를 찍을 때였죠. 렌즈에는 밤새 내린 눈에 덮인 절의 곡선이 그 너머에 있는 지리산세와 '맑은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이야말로 한국의 예술정신임을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는 건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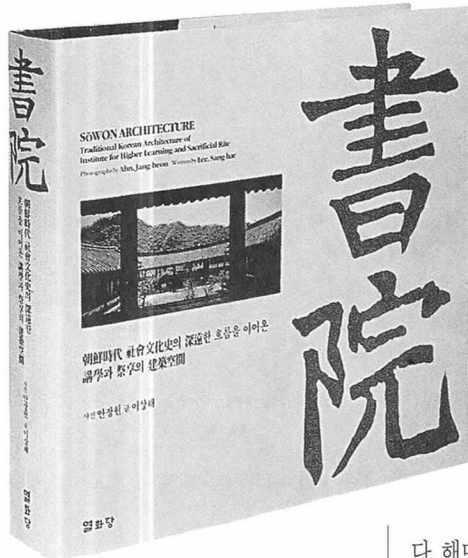
자연을 건축적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서원으로 유성룡을 모신 경북 안동의 병산서

원이 꼽힌다. 물항아리 모양으로 휘감아도는 낙동강 물줄기의 강가 언덕에 남향으로 자리한 병산서원은 병풍처럼 둘러선 건너편 병산의 그림자가 강물 깊게 드리워진 모래사장을 마주하고 있다. 건물을 앉힐 땅과 주변경관을 이해하여 탁월한 건축공간을 만들고 있는 병산서원의 만대루에는, 일곱칸 공간 열개 속으로 일곱 폭 자연병풍이 들어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건축을 둘러싼 자연이 건축 공간 미학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절대향을 중시한 향교와 달리 서원은 지형을 이용한 훨씬 변화 있는 배치를 보인다. 서원 영역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홍살문을 지나면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한 하마비(하마석)가 있다. 서원 정문인 외문(外門)에는 보통 누(樓)를 두기도 하는데, 이 누마루에 서면 주변경관과 서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유림은 시회와 풍류를 즐겼다. 누를 지나면 유생들이 강학과 유희를 열었던 교육공간 '강당'과 원생이 기거하며 독서하는 '제사'가 서로 마주한다. 그 뒤로 선현의 위패를 모신 정숙한 사당일곽이 깊숙이 자리한다. 선현의 문집을 판각, 수장하는 장관각이나 장서각, 제사 물건을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 제기고(祭器庫) 등도 있다.

“서원을 이루는 대부분의 건물·시설물은

# 복합문화공간에 반드시 서점을 만듭시다



집에서 전통문화를 담백한 시각 언어로 풀어낸 안장현씨는 '서원'에서 전통건축의 수준 높은 미학을 읽는다. 계절과 시각에 따라, 서원 성격에 가장 알맞은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 몇차례씩 다시 찾곤 하던 서원의 퇴락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안타까웠다. 지붕이 쇠락하기 시작하던 한 서원을 흑백으로 작업했다가 1년후 다시 찾았을 땐 완전히 풀숲으로 변해버려 주변경관만 짙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다. 해마다 200일 이상 촬영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전통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주)한샘의 지원 덕분이었다. 전통건축에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찾아 세계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사주의 의지로 '서원'에 남아 있는 구석구석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 옛것에서 오늘의 정신적 실체 배워

"강학이 이뤄지던 곳에는 활발한 생동의 공간이, 제향을 하는 곳에는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서원 전체의 역동적인 공간을 이룹니다. 성리학적 정신세계가 자연과 합일하는 이 공간에 집약돼 있는 셈이지요. 분명 그 안에는 우리만이 지닌 고유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실측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들의 공동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싶다. 글만으로도 모자라고, 영상만으로도 부족한 우리 전통건축의 소개는 아직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와 맑음의 정신'으로 일궈나간 서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정신이 무언지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해 교수와 안장현씨의 생각이다. 한국인이 그곳에서 살며 만들어간 공간은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소우주였음을 오늘 다시 서원을 해석해 복원한 이 책으로 깨닫게 된다.

— 김지원 기자

열화당/B5 변형/408면/50,000원

성리학의 정신세계에 따라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은 피하고, 질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원을 지을 정다면 상당한 재력을 지녔을 텐데 건축물은 사람을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고 건축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선현을 모시는 사당에만 단청을 했는데, 사당 내부 벽화조차 선현의 시 내용을 담은 단아한 그림을 두어 정제된 미학을 빚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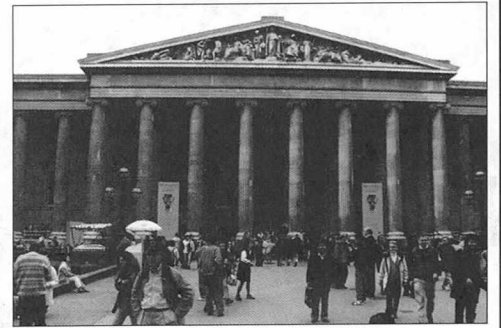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을 꾸준히 연구해온 이상해 교수는 《한국의 현대건축》, 《한국건축사》(공저) 등의 저서를 펴냈고, 종묘와 해인사 장경각 등 우리 건축에 담겨 있는 정신과 사상배경을 탐구해왔다. 이 책에 실린 64곳 서원의 배치도는 이상해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일일이 실측한 것을 정교하게 도면화한 것인데, 건물뿐 아니라 산과 강줄기를 함께 그려 자연과 조화 속에 어우러진 서원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서원을 찍어온 안장현씨는 또다른 눈으로 서원을 바라본다.

"사진으로 표현할 때도 서원건축이 인간 중심의 시각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생활할 때의 눈높이에 가장 잘 어울리게 지은 서원은 바로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어야 그 편안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낮은 데서 위를 향해 찍을 땐 건물이 왜곡돼 보이는 걸 막기 위해 따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지요. 누의 기둥에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범함에서 건축에 담긴 어떤 정신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석불》, 《석굴암》, 《영경의 미소》 등의 사진

책이 안팔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출판정보를 다루는 대중적인 매체가 없고 사람들이 서점을 쉽게 드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출판정보 매체가 없다면 독자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차선책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서점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책의 판매가 신장되리라는 것은 영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 마케팅의 모든 힘을 서점으로 사람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영박물관의 전경. 입구로 들어가서 왼편에 서점이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서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해 보면 공항의 면세점이나 상가에 서점다운 서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공항의 유동 인구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빈곤을 노출시키는 부끄러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이나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서점을 가보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박물관 전시물과 관련된 도서뿐만 아니라 여행 안내서, 인문과학서, 어린이 도서, 일반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책들을 넓은 공간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의 공공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체의 공공 건물을 복합문화공간화 할 때 형식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서 부실한 도서관을 만들기보다는 문화적 식견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서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에서는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서점을 유치하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빌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서점에 세를 주기도 합니다.

테마 파크, 컨벤션 센터, 복합문화건물, 공연장, 극장, 박물관, 고궁, 김포공항, 지하철 환승역,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중대형 서점을 유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면 정부에서 출판계를 위하여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먹는 장사들만 들끓을 것이 아니라 항상 책이 있는 문화적 풍토를 조성할 때, 우리의 출판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 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 도모사업부 T. 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